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본선 대진표 완성

“이제부터 썬 경쟁”...민주 vs 혁신·무소속 대혈투 예고

동구서 전현직 구청장 맞대결...서구·남구 무투표 당선 유력 혁신당 “인물로 승부”...목포·여수·담양·함평 등서 정면승부 순천·강진·진도, 현직 무소속 출마에 예측불가 ‘초점전’ 전망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후보 구성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에서도 22개 시군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여기에 호남에서 대안 정당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타 정당들도 후보를 잇따라 확정하면서 선거 국면은 경선에서 본선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흐름이다.

27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화순군수 후보 선출을 끝으로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확정된 후보는 지역별로 △목포 강성휘 △여수 서영학 △순천 손훈모 △나주 윤병태 △광양 정인화 △담양 박종원 △곡성

조상래 △구례 장길선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화순 임지락 △장성 김한중 △장흥 김성 △강진 차영수 △해남 명현관 △영암 우승희 △무안 김산 △함평 이남오 △영광 장세일 △원도 우홍섭 △진도 이재각 △신안 박우량 등이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10일 광주 5개 자치구 후보 구성을 마쳤다. 동구 임택, 서구 김이강, 남구 김병내, 북구 신수정, 광산구 박병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 이로써 광주·전남 전반에서 민주당 후보 구성이 마무리되며 본선 체제가 본격화됐다.

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려 타 정당 역시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출마해 동구에서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북구와 광산구에서는 진보당 김주엽, 정의당 후보가 각각 선거전에 나섰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타 정당 후보가 없어 민주당 김이강, 김병내 후보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다수 지역에 후보를 내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목포 박종률 △여수 명창환 △나주 김덕수 △담양 정철원 △곡성 박용두 △구례 이창호 △장흥 사순문 △영암 최영열 △함평 이윤형 △영광 정원식 △장성 김양근 등이다.

여기에 진보당은 순천 이성수, 영광 이석하 등 2곳, 정의당은 목포 여인두 후보를 내며 일부 지역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일부 지역에 후보를 내며 본선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소속 출마 지역이다. 순천 노관규, 강진 강진원, 진도 김희수 등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직접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지역은 정당 공천과 별개로 개인 지지 기반이 강한 후보가 맞붙는 구도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선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이 전남 상당수 지역에 후보를 내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가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표 분산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일까지 약 40일을 남겨둔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조직 정비와 세 걸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경선 이후 이탈 표심 관리와 조직 재정비에 나섰고, 경쟁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지지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본선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며 “지역별로 후보 구성과 경쟁 형태가 다른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접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4~15일이며, 같은 달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 대진표 확정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동구	임택	김성환	-	-	-
서구	김이강	-	-	-	-
남구	김병내	-	-	-	-
북구	신수정	-	김주엽	-	-
광산구	박병규	-	정희성	-	-
목포시	강성휘	박종률	-	여인두	김시윤
여수시	서영학	명창환	-	-	임용규·김창주
순천시	손훈모	-	이성수	-	노관규(출마예정)
나주시	윤병태	김덕수	-	-	-
광양시	정인화	-	-	-	박성현
담양군	박종원	정철원	-	-	최화삼
장성군	김한중	김양근	-	-	-
곡성군	조상래	박용두	-	-	-
구례군	장길선	이창호	-	-	박인태·정양주·정택·이현창
고흥군	공영민	-	-	-	-
보성군	김철우	-	-	-	윤영주·임영수
화순군	임지락	-	-	-	김희수
장흥군	김성	사순문	-	-	-
강진군	차영수	-	-	-	김진원
완도군	우홍섭	-	-	-	김산
해남군	명현관	서해근	-	-	박지원
진도군	이재각	-	-	-	김희수(출마예정)
영암군	우승희	최영열	-	-	오현선
무안군	김산	-	-	-	-
영광군	장세일	정원식	이석하	-	김한규·오기원
함평군	이남오	이윤형	-	-	이형섭
신안군	박우량	김태성	-	-	고길호·최재순

*후보자명은 가나다순이 아닌 지역별로 가나다순 정렬



80해언합, 헌법에 '5·18광주민주항쟁' 명기 요구 27일 국회 소동관에서 80년해직언인협의회의(80해언합) 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혁영 국회부의장, 김재홍 80해언합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4곳 출마

“3~4인 중 최소 1석은 진보당으로” 호소

진보당이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4곳에 모두 후보를 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출마자 4인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다”며 “시의원 중대선거구 3~4인 중 최소 1석은 진보당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후보는 남구 1선거구 김해란, 북구갑 1선거구 이재광, 북구를 2선거구 윤민호, 광산구를 3선거구 최경미 등 4명이다.

이들은 “광주 정치가 30년 1당 독점을 끝내고 진보와 민주 양 날개로 비상해야 할 때”라며 “중대선거구 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살려내 광주 정치의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선거구 도입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정수는 4명 증가에 그쳤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며 “이는 진보당의 시의회 진출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최소 1명은 무공천하는 결단을 보이라”며 “1명 무공천이 가능과 무책임 핏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고 요구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후보는 남구 1선거구 김해란, 북구갑 1선거구 이재광, 북구를 2선거구 윤민호, 광산구를 3선거구 최경미 등 4명이다. 이들은 “광주 정치가 30년 1당 독점을 끝내고 진보와 민주 양 날개로 비상해야 할 때”라며 “중대선거구 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살려내 광주 정치의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원진 “지방정치 바꾸겠다” ‘파란개비’ 중앙선대위 출범

조국혁신당 서원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파란개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바람을 지방정치를 바꾸는 강한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목표로 △내란개혁제로 △부정부패 제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제시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흔든 세력이 다시는 지역 권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공천거제, 매관매직, 금품선거, 토호 권력과의 유착 등 독점정치가 키운 부패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주거권, 돌봄권, 교육권, 건강권, 디지털권 등 사회권을 풀뿌리 지방정부에서부터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6월 3일 조국혁신당을 더 크게 세달라”며 “내란 정당을 대체하고 기득권 양단체제를 흔들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조국혁신당을 제1야당으로 바꿔 달라. 국민의 바람을 국민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책 설계·집행 시민참여 보장”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 시민주권정부 수립 약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는 27일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통해 행정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범’ 세미나에 참석해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다

른 어떤 도시보다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정책 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

정의당 강은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공약 제시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는 27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관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라며 “관리중심 공공일 자리를 확대해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지역 중증장애인은 약 7만6천명에 달하지만, 올해 관리중심 공공일자리 채용 인원은 광주 35명 전남 130명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기금’ 조성



고 빛고을남도포럼이 주관했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시민 중심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통합특별시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이번 토론회가 시민주권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의의 내용이 시민주권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길을 여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을 통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관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중증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노동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평등한 노동자로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김대중 후보 사퇴 촉구 통합교육감 후보 4인 공동기자회견 “철저히 수사해야”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인 강숙영·고두갑·김해룡·이정선 등 4명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예비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숙영 예비후보는 다른 일선장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김대중 후보가 전남도교육감 재임 시절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리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민의 혈세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후보 출장 당시 1100만 원대 항공료 책정은 “당시 시세를 크게 웃도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광주시교육감인 이정선 후보도 “제 경험으로는 후보 출장 때 200만 원 대의 항공료 비용이 들었다”며 “11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결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정황이 있다”며 “그 차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 일정 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주 출장 당시 항공권 결제 내역과 탑승권 △현지 지출 증빙 자료 공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및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외부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원을 통해 10차례 국외출장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고 김대중 교육감 730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예비후보는 “여행사가 항공료에 국외연수 현지 통역비와 가이드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풀려진 항공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후보단일화 추진을 선언한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 3명은 27~28일 여론조사를 거쳐 29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